

# 간호교육제도

최 연 순  
(연대 간호대학 교수)

## 1. 서 론

오늘날 한국의 간호교육의 이념과 제도에 관한 제문제는 한국 간호교육 발전의 역사와 학문적 전통은 물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제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며 그 해결과 개선을 위한 처방도 결코 단순한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간호교육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이냐에 대하여는 낙관과 비판의 양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비판론을 전개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승리를 믿기 때문이다.

간호교육제도는 간호교육의 목표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간호의 목표에 따라 달리하게 된다. 교육목표는 어떤 제도적인 틀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는 교육결과를 좌우하는 우선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간호의 목표는 질병간호에만 있지 않고 전인물 간호의 대상으로 하여, 간호의 대상 범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간호는 종래의 병원이라는 국한된 환경에서 행하여지던 역할을 확대하여 병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어디서나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행위면에서 전문직답게 보다 진취적이고 자율적이고 응용과학적인 역할수행을 하도록 훈련을 받아 효율적인 의사결정자, 문제해결자, 능숙한 실무자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건강요

구를 미리 관찰, 진단하여 이에 대한 적당한 중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간호역할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간호원을 배출해 내는 것은 간호교육의 당면 과제라고 본다.

이는 또한 간호대상자의 교육 수준의 향상, 간호활동의 변화, 간호역할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날로 변함에 따라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원을 배출하고 있는 간호교육자들은 교육제도가 교육목표나 그 교육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간호학자인 Virginia C. Conley는 간호교육의 제 요소로는 간호교육행정, 교육제정, 교수, 간호개념, 간호연구, 교과목, 학생, 학습평가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장 우선적인 교육제도속에 함축된 구체적인 요소들이라고 하겠다. 본인은 이 장을 통하여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인 측면만을 다루며 한다.

## 2. 본 론

### 1) 교육제도

교육제도란 어휘는 지식과 문화적 유산을 전승하여 개인의 사회적·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규기관이나 기구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떠한 교육제도도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변화는 확실히 눈에 띄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해도 계속 변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교육이 계속 변화하는 인간에 관련될 것이며 인간의 제도와 활동은 수정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I.L. Kandel은 그의 저서 '교육의 새로운 시대'라는 글에서 어떤 교육제도도 '평형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모든 교육제도는 '되어지는 중'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교육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제도를 아헤하려면 일반적으로 제도는 사회적·문화적·정신적·경제적·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임을 간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제도에 관한 재고를 위하여 교육에 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일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된다.

## 2) 대학의 특성(기능)

간호교육은 현재 전문대학이든 4년제 학사과정 이든 간에 대학과정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우선 대학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의 보이지 않는 산물인 지식은 직업이나 나아가선 사회계층이나 지역이나 국가의 흥망에 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우리 문화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유일한 요소이다. 대학은 현실적으로 어떤 시대에도 없었을 정도로 강력하게 지식의 생산을 요청받고 있다. 또 대학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광범한 인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요청받고 있다. 대학은 지식의 공급원으로서 또 새 지식의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정치적·문화적 변화까지 일으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대학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다원적인 기관이라고 하겠다. 즉 하나가 아닌 여러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힘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여러명의 고객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다원적이다.

뉴우먼 추기경에 의하면 대학이란 「모든 지식과 과학, 사실과 원리, 연구와 발견, 실험과 사색 등과 같은 것들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지식의 영역을 정하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침해나 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소」라고 함으로서 '교양으로서의 지식'을 찬양한 나머지 '실용을 위한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약에 대학의 목적이 과학적 및 철학적 발견에만 있다면 대학에 학생이 존재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대학은 신망을 가지고 어떠한 직책이라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어떠한 문제라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인물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왜냐하면 대학은 각 시대의 전례로서의 사회기구조부터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 그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대학은 사회로부터 유리된 어떤 역사적인 존재도 아니며 각 시대의 표현이며 현재와 미래에 작용해 나가는 하나의 영향력이다. 대학은 지식을 추구하며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의 업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인간을 참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도록 양성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다.

대학은 사회와 격리된 상아탑이 아니며 사회적 현실의 기초 위에서 자신의 사회적 효용가치를 발휘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격으로서 유용하기 위해서도 대학은 인격을 기저로 하는 인력을 배출시킬을 기본적 임무로 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역등발전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란 도리어 통찰력과 더불어 생산적·창의적 사고와 재조정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일 것이다.

사회 각층은 각각의 측면에 따른 여러가지 역할을 대학에 기대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또한 사회적 수요를 위한 인력양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심오한 진리 탐구라는 대학원래의 사명이 아울러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제요청과 기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명제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제요청과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대학에서는 참 인격을 소유한 인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인격소유자로서의 인력이어야 말로 진정 유용한 인간형이며 이러한 인

간을 산출하는 기능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회적 제도도 감당할 수 없는 대학의 고유한 기능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대학기능을 전문적인 훈련, 사회에 대한 연구와 대학원 교육, 사회 봉사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기능은 전문화에 의해서 진보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의 대학은 전문화의 길을 걸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서 있다.

### 3) 간호교육의 특성

오늘날 한국의 간호교육은 전문대학이든 학사과정이든 간에 대학의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간호대학 교육은 일반대학에서 처럼 교양으로서의 지식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용을 위한 지식을 준비시켜야 하며 건전한 민주시민 배출에 대하여 간호교육에 부가되어야 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은 전문인을 배출하는 것으로, 사회에 어떤 행위 즉 practice를 수행하는 것에 둔다. 이 practice는 우리 사회 요구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며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어야 한다. 즉 간호교육을 통하여 하나의 간호원,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practice profession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 간호교육의 공통된 목표이다.

사회는 전문직 간호원이 간호업무의 전체 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직접적인 환자간호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규적인 의료기관 및 비정규적인 기관 모두에서 간호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원의 역할확대는 지도력있는 간호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간호원은 징규적이거나 비징규적인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정, 계획, 수행, 평가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모든 간호실무의 범위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이다. 간호원은 간호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신체, 정신사회, 문화적 지식을 적용·분석·종합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인지적 기술을 사용하도

록 교육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간호원으로서의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간호원은 간호팀에게 리더쉽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포괄적인 간호를 전달하고 타분야의 건강요원들과 협동적인 간호를 하며 기관사이에서, 기관과 가정사이에서, 응급치료기관의 병동사이에서 질병과리는 물론 건강증진, 질병예방을 위해 계속적인 간호를 제공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간호원으로서 교육시켜야 함은 이미 모든 교육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간호전문대학은 타 전문대학과는 달리 실습을 위한 기간으로 1년을 추가하여 3년제 전문대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능숙성은 실제상황에서 적절한 간호의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며 간호실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개인이 나타낸 능력이다. 그러나 이 능력이라는 말이 기술적인 능숙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능숙하기를 기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문간호원으로서의 능력은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고 구분하며 결정하여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기 위하여 인간과 사물의 현상, 상황을 인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적 영역의 능력강화는 타학문과 인간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관한 개념이 획득된 상태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전문직 간호원은 지식을 종합하고 실제적인 활동으로 행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호원이 학사학위물 가진다는 것은 생물, 신체, 사회, 행동과학의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임을 뜻하며 또한 비판적 사고력, 임상연구, 의사결정의 기술을 증진시키도록 교육적으로 준비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 4) 간호교육제도 변천사

그렇다면 이러한 실천적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교육의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상기한 바와 같이 제도는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로서 앞으로 기대되는 변화를 예측 혹은 추구하기 위해서 과거를 알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 제도에 관해서 이야기 하려면 먼저 역사적인 과거의 교육제도와 현재의 교육제도를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06년 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Esther Shields에 의한 간호원 양성소가 설립되면서 정규 간호교육이 시작되었다.

그후 1946년 전국의 간호원양성소가 고등간호학교로 개칭되면서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산파를 조산원으로 공식명칭을 개칭하게 되었다. 이때까지의 교원철학은 주로 친절하고 모성애를 지닌 능숙한 간호기술자이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는 간호교육이 기술교육으로는 부족하여 그 이상의 개념과 철학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62년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입학자격을 두는 3년제 간호학교로 승격되고 1970년 간호전문학교로 개편되면서 1979년 부터는 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학사과정은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설되면서 이어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에 간호학파가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어 간호학 석사배출이 시작되었고 1973년 부터 간호원출신의 박사가 배출되어, 1978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간호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한국간호계에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약 4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여러 분야에서 간호학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간호교육은 간호전문대학으로 3년제와 4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이원화된 것이 현실이다. 전문대학은 그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3년간 학사과정의 교육을 받고 똑같은 국가고시를 거쳐서 정규간호원이 되는 자격을 얻고 있다.

##### 5) 간호교육제도의 일원화

그러나 간호교육은 순수학문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므로 간호학습은 강의실 학습과 임상학습이

필수적이며 이는 똑같이 비중을 두어야 한다. 즉 이론과 실습의 병합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과 실습의 병합교육을 위하여는 현장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는 간호교육은 교육에서 목적하는 바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이외에 대인관계술과 임상판단력을 길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추가목표들은 현장교육에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제도의 통일이 요청되는 바이다.

간호교육은 간호원을 전문인으로 보는가, 기술자로 보는가?

간호교육에서 학사과정에서는 전문인을, 전문대에서는 기술자를 키우고 있는가? 과연 교육의 결과가 그같이 분류되고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는 그들이 공동의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현장인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요원으로 간호원들이 기능할 때 그들은 교육적배경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대를 받고 있다.

간호교육의 기간이나 내용에서의 다양성은 간호행정자들에게 혼돈과 압박감을 주는 요인이 되고 간호원들 자신은 간호원의 지위가 구분될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같은 현상은 전문인끼리 협동하는 동료가 되기 힘들게 만들어 전문대학 출신이나 학사출신 모두가 피곤하고 의욕상실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간호행정자가 새로운 간호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다르게 하여 임상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교육제도의 일원화는 간호전문직이 통일된 힘을 갖기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모든 전문직은 사회속에서 단합된 힘을 유지할 때에 존재 가능하다. 힘이란 '의도된 효과'로서 행동이나 생산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또한 힘은 구성원의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구분을 지어준다. 그러므로 힘은 잠재성이나 지배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힘은 구성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단합된 힘은 개인의 힘

을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원화 교육제도는 전문인 단체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힘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소인이 되고 있다.

### 3. 결 론

#### 1) 간호교육제도의 모색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건강권이 강하게 주장됨에 따라 간호는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까지 진출된 여러가지 간호원의 역할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간호교육의 최종목표를 간호 중견기술인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간호교육제도는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원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①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국민이 자가간호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을 시키려면 간호원은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된다.

② 국민의 건강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간호원은 각종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자신을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③ 국민의 건강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질병문제만을 해결받기 원하던 국민이 이제 안녕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있다.

④ 간호원은 국민의 건강관리 비용을 절감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이다.

⑤ 건강관리 전달 체계내에서 상호 유대관계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⑥ 지역사회내에서 개인·가족·집단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인접 학문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⑦ 모든 전문직업속에서 대등한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⑧ 간호원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⑨ 현행 전문대학의 교과편성 내용은 이미 학사 학위 과정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국가적인 인력수급의 차원에서 볼 때 이원화가 낭비이고 미국에서는 이미 1995년까지 전국 간호 교육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⑩ 국민의 간호역할 기대는 동일해야 하며 이중적인 혼란은 방지되어야 한다.

#### 2) 간호교육제도의 일원화 방향

현재 간호전문대학은 문교부 사회적업교육국에 속하여 있으나 교과구성내용이나 학점배열을 살펴볼 때 간호대학 혹은 간호학과 등의 학사과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이미 간호교육자의 간호 교육 수준에서는 이해·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간호교육 제도중에 대학수준의 교육기관이 생긴 것은 1950년대 말의 일로서 이는 점차 사회여건의 변천에 따라서 교육의 상향 지향적인 영향에도 힘입은 바 있으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절이 더욱 옷점이 되고 있다.

사회속에서 간호학이 타학문과의 주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합된 간호전문 단체가 되기 위하여는 앞으로의 교육제도 통일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교육 기회를 개방하여 기망의 전문대학졸업 간호원이 학사 간호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2]